

윤중천이 광주 조폭? 특하면 호남 비하

〈성접대 의혹 장본인〉

연고 없는데 사이버 왜곡 글 확산 경찰, 허위 사실 유포 수수방관

“까고 보니 전라도라!! 광주 조폭 출신이라는 윤중천. 인제야 보고네.” ‘광주 조폭 출신 건설업자에게 걸렸으면 때 하나 추리기도 힘들겠네요.’

건설업자 윤중천(52)씨의 고위 공직자 성접대 의혹 사건이 애꿎은 광주·전남 지역으로 옮겨 붙었다. 사건의 본질과 전혀 관계가 없는데다, 잘못된 사실인데도 확인 없이 사이버상에 무차별적으로 퍼날라져 왜곡되면서 ‘호남 비하’로 확대되고 있다.

윤씨의 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 미확인 소문들과 호남 비하 글이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는데도, 적극적인 대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25일까지 인터넷 블로그와 트위터, 카카오톡 등에는 윤씨의 성접대 명단과 사건 개요가 담긴 출처 불분명한 글이 급속도로 퍼졌다.

식사·술자리에서는 관련 내용을 안주 삼아 대화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고, ‘박근혜정부 실패를 위해 민통당 의원들과 꾸민 음모’라거나 ‘홍여씨의 뒤통수치기 권법’ 등 댓글이 달리며 무차별적으로 왜곡되거나 부풀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정보글에는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수사중인 윤씨 성접대 의혹의 발단이 된 고소사건을 비롯, 관련 인물, 성접대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 리스트가 실명으로 담겨 있다.

하지만 윤씨는 광주가 아닌, 충북 제천 출신으로 호남에 연고 없는 인물로 광주·전남지방경찰청은 파악

중이다. 경찰은 또 주기적으로 첩보를 수집하고 동향을 파악하는 관리대상 주요 조직폭력배에 윤씨의 이름은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

경찰 관계자는 “폭력배로 지역에 연고가 있는 인물이라면 쉽게 파악이 가능하지만 윤씨는 동네 폭력 패거리도 모르는, 지역과 관련 없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50대 여성사업가 K씨의 부탁을 받은 광주 조폭 출신 P씨가 벤츠 승용차를 되찾는 과정에서 동영상 CD가 발견됐다”는 리스트 내용에 나온 P씨도 광주 출신이 아니며 조직폭력배도 아닌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타고 급속도로 퍼지면서 호남 비하로까지 번지고 있는데도, 경찰은 속수무책이다.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청도 “나중

에 명예훼손 우려가 높은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지만 현재로는 수사 방침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역 경찰청도 “본청에서 하는 일”이라며 확산을 막는 조치를 하지 않아 지역민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한편, 이에 앞서 전남도는 도를 넘고 있는 호남 비하 발언을 일삼는 네티즌을 처음으로 수사 의뢰하는가 하면, 전라도 비하 카페를 폐쇄하고 비하글 추출 시스템 등 개발에 나서고 있다.

4/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성접대의 윤중천이라는 친구, 광주조폭이라는데, 조폭을 일망타진해야 세상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전남도는 도를 넘고 있는 호남 비하 발언을 일삼는 네티즌을 처음으로 수사 의뢰하는가 하면, 전라도 비하 카페를 폐쇄하고 비하글 추출 시스템 등 개발에 나서고 있다.

4/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고위공직자 등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성 접대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의 별장에서 25일 오후 관리인이 주변을 돌아보고 있다. /연습스

‘성접대 의혹’ 고위공직자 첫 소환조사

경찰, 대학병원장 등 2~3명도 곧 부를듯

경찰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성 접대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전·현직 고위 공무원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름이 거론된 인사 중 처음으로 국장급 고위공무원을 지난주 소환조사한데 이어 전직 사정기관 고위공무원과 대학병원장 등 2~3명도 조만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국장급 고위공무원 B씨를 22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B씨는 윤씨의 강연도 원주 별장에 초대돼 성 접대 등 향응을 받고 윤씨로부터 성 접대 동영상 미끼로 협박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경찰 조사에서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특히 윤씨가 공동대표로 있는 D건

을 혐의에 분양했다는 의혹 등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현직 경찰 고위 관계자들이 윤씨가 20여건의 고소·고발 사건 등으로 입건되고도 대부분 처벌되지 않은 것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윤씨의 별장에서 수천만~수억원대의 도박판을 벌여줬다는 참고인 진술과 마약성 약물을 복용한 채 환각파티를 벌인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성 접대 의혹을 받은 유력 인사의 리스트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매체를 이용해 강남지역에서 빌라사업을 할때 전직 사정기관 고위 공무원 E씨에게 빌라

CJ 헬로비전 www.cjhellevision.com

디지털 방송의 모든 것이 자신있다
디지털 멀티플레이어,
헬로tv

hello tv

- 국내 최대 220여 개 채널 보유
- 생생한 지역정보
- 불거리가 풍부한 VOD 콘텐츠
- 클라우드 게임, 노래방, 쇼핑 등 편리한 부가기능
- 쉽고 편리한 이용법
- 2시간 만에 다시보는 지상파방송

▶ 헬로넷 TV ▶ 헬로넷 ▶ 헬로폰

SAVE 최대 56%
헬로셋 1588-3450
디지털 방송은 헬로tv로

※위의 할인율은 가입 조건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보정국 만류해도 “우린 모른다”

북구의회 민주소속 17명 자제 여론 목살... 연수 강행

광주시 북구의회 의원들이 자제 여론(광주일보 15일자 5면)에도 불구하고 계획된 일정이라는 점을 들어 ‘관광성’ 해의 연수를 강행했다. 지역민들이 뽑아놓은 의원들이지만 ‘남북간 위기 상황’에 시기가 좋지 않다는 지역민들의 의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14일 광주 북구의회에 따르면 전체 의원 20명 중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 17명은 2개 팀으로 나뉘어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해외연수를 떠났다. 다만,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 2명은 이번 해외연수에 불참했으며, 나머지 1명은 해외연수를 이미 다녀왔다.

의원 8명은 다음달 3일까지 그리스와 터키 등 지중해 대표적 관광지를 둘러보기로 했고 나머지 9명은 31

까지 중국·홍콩·마카오 등을 여행한다.

현지 지방자치발전 방안 등을 명분으로 했지만 상당수 일정이 관광성으로 채워져 있는데다, 북측이 정전협정 백지화와 남북 불가침 협정 파기를 언급하는 등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추진됐다는 점에서 지역민들의 시선이 굽지 않았다.

특히 북구의회 의원들은 애초 해외 연수 일정이 알려진 뒤 자제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도 ‘이미 계획된 일정’이라며 강행해 지역민들의 의사를 저버렸다는 지적도 많다.

한편, 남구의회 의원 4명은 애초 이날 북구의회 의원들과 함께 터키·그리스 해외연수를 다녀올 예정이었으나 주민 여론·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이번 연수를 취소했다. 이들은 연수 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자부담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4/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전남경찰, 이번엔 초임 여순경이...

귀갓길 만취 운전하다 택시 들이받아

“쇠귀에 경 읽기?” 경찰복을 입은 여순경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뇌물수수·횡령, 성폭행, 금고형 등 ‘백화점’식 비리 혐의로 목살을 앓고 있는 전남경찰이 지역별로 돌아가며 결의대회·워크숍·자정 선언 등 신뢰 회복을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난 일이다.

25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목포경찰서 소속 J(여·25) 순경은 지난 23일 밤 10시경 목포시 산정동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중인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경찰은 사고 뒤 측정된 J순경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125%였던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그러나 사고 이후 1시간 가량 지나 측정된 수치라는 점을 들어 추후 정확한 수치를 조사할 계획이다.

J순경은 지난해 8월 임용돼 목포에서 첫 근무를 해왔으며 “아는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뒤 중징계 하겠다는 방침이다.

4/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기도암 근로자 첫 산재 판정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에서 일하던 중 기도암에 걸린 50대 남성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다.

25일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근로복지공단 등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에 재직하던 최모(55)씨가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산재 승인 판정을 받았다.

최씨는 지난 1995년 비정규직으로 입사한 뒤 2004년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며 2005년 5월 삼성서울병원에서 기도암 판정을 받고 휴직한 뒤 10월 복직했다. 이후 폐에 이상을 느낀 최씨는 2011년 12월 다시 휴직한 뒤 전

남대 화순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금호타이어노조 곡성공장지회는 지난해 1월 최씨를 면담하고 나서 산재신청 결정을 내리고 서류를 준비해 지난 3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에 산재 신청을 접수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역학조사와 작업환경성 평가, 업무 관련성 평가 등을 거쳐, 지난주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는 심의를 열고 최종 산재 승인을 내렸다.

한편, 지난해에도 곡성공장에 재직하던 중 백혈병에 걸린 2명의 조합원이 산재 인정 판정을 받았었다.

4/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니원침 (8781)



법원 착오 전자발찌 취소

법원의 착오로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취소됐다.

25일 광주고법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32)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발찌(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재판을 최근 광주고법에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징역 4년을 선고한 본안을 확정했지만 “집금 금지 명령을 명하면서 그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며 전자발찌 부착에 관한 재판은 파기했다.

4/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성당서 수박 던지고 욕설 난동

○성당 미사 시간에 수박을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린 40대 여성이 경찰서행.

○25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이모(여·49)씨는 지난 24일 오후 광주시 남구 진월동 한 성당에서 350여 명의 신도들이 미사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수박을 던지고 제지하는 신도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행패를 부리다 붙잡혔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성가대 노래를 들으려고 성당 안을 바쁘게 돌아다니다 미사 진행에 방해된다며 신도들에게 한 차례 쫓겨난 뒤 화가 나 다시 성당을 찾아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판명.

4/박정희기자 halo@

정서코칭 및 학교폭력예방상담사 수강생 모집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위한 사랑과 행복의 기술

- 교육일시: 1단계 2013년 4월 6일(토) 오전 10시 ~ 오후 5시, 2단계 2013년 4월 13일(토) 오전 10시 ~ 오후 5시, 3단계 2013년 4월 20일(토) 오전 10시 ~ 오후 5시, 4단계 보수교육 2년간 4회 이수 - 1회: 5월 10일(금) 오후 6시 ~ 10시
- 교육장소: 광신대학교 진리관
- 제출서류: 입학원서 www.ayce.co.kr 첨부자료 다운 kcfce@hanmail.net 접수문의: 사)한국청소년상담교육협회 062) 652-0675, 010) 8299-6237
- 교육비: 25만원 / (사전 접수: 3월 30일까지 입금 한하여 22만원) (입금계좌) >> 농협 355-0012-1260-13 예금주: 사)한국청소년상담교육협회 (보수교육비 별도 1회당 5만원 및 자격 검증비 별도/정서코칭 2급 5만원, 학교폭력예방상담사 3만원)
- 특 전: 토레정서코칭지도사 취득을 위한 임상시간에 포함됨 (토레정서코칭지도사 과정: 정서코칭필수 + 교육2회, 임상 후 자격이수 정서코칭 + 아동가족심리상담사 두 강좌 접수시 혜택: 교육비 40만원)

주관 |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 www.kwangshin.ac.kr
후원 | fbc 광주동방송 www.fbc.net

여성가족부 인정 2013-1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광주광역시 북구청 승인 교육기관: 08-1>

- 교육일시(총100시간) ▶ 2013년 6월 17일(월)~ 월, 화, 목, 금 오후 6:00~
- 모집대상 (각 함에서 1개만 해당되면 가능)
 -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 ③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
 - ④ 이주 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외국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에 있는 자
 - ⑤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장애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에 있는 자
- 본원의 가정폭력상담원 과정자 중 성폭력상담원 자격 취득 희망시 별도비용과 추가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은 가정폭력방지법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 신고한 교육훈련시설으로서,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폭력상담원과 성폭력상담원 교육을 실시합니다.